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7. 6.(목) 09:00 < 7.6.(목) 석간 > 배포 2023. 7. 5.(수)

한일 산업협력, 정부와 산업계 힘을 모아 본 궤도에 안착

- 「한·일 산업협력 토론회(포럼)」(전경련-경단련 공동주최) 참석
- 한일 간 수출규제 갈등이 종식되어 본격적인 협력 기반구축
- 양국 경제인이 협력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성과 창출할 때

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재개(3. 16.(목) 도쿄, 5. 7.(일) 서울, 5. 21.(일) 히로시마)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(6. 27.(화), 일본 각의 결정)에 따라 양국 경제인들 간 산업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.

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지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지 9일만인 7. 6.(목),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(경단련)는 전경련회관(서울)에서 「한·일 산업협력 토론회(포럼)」를 개최하였다.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제조, 금융, 인터넷 등 분야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.

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지난 양국 정상 간 대승적 결단으로 불과 2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”라면서, “한일 간 수출규제 갈등이 종식되어서 본격적인 협력의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양국 경제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 아울러, 이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방향으로 ▲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국제적(글로벌)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, ▲배터리·디지털·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, ▲미래세대 간 교류 지속을 강조하고,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주원석 (044-203-5690)
		담당자	주무관	박진주 (044-203-569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「한·일 산업협력 포럼」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시·장소** : '23. 7. 6.(목) 09:00~11:00 / 전경련 컨퍼런스센터(3F 다이아몬드룸)

○ **주　최** : (한국)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, (일본)경제단체연합회(경단련)

○ **참석자** : 한일 정부, 기업인 등 관계자 약 70명

○ **취　지** : 한일 산업계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등

□ 상세 일정

* 한-일 동시통역

시 간	주요내용	비 고
09:00~09:02	**기념 촬영**	
09:02~09:10	**개회사**	▸ 김병준 전경련 회장(직대) ▸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
09:10~09:15	**축사**	▸ **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
09:20~09:30	**일측 정부 대표 인사말**	▸ 마쓰오 다케히코 경산성 통상정책국장
09:30~09:50	**주제발표** **: 한일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**	▸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*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韓측 자문위원장 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*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日측 자문위원장
09:50~10:55	**기업인 발표**	▸ (韓)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(한일경제협회장) ▸ (日)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▸ (韓)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▸ (日)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▸ (韓)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·부회장 ▸ (日) 엔도 노부히로 일본전기(NEC) 특별고문 ▸ (韓)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
10:55~11:00	**폐회사**	▸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▸ 김병준 전경련 회장(직대)